■ 르포 - 태풍 피해 보성군 벌교읍 일대 복구 현장

흙탕물 범벅 주민·공무원·경찰 등 400여명이 17일 오전 보성군 벌교읍에서 제11호 태풍 '나리'에 따른 산사태로 토사가 덮쳐 진흙 바닥이 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고 있다. /보성=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상가 덮친 진흙더미·쓰레기 '아수라장'

출하 앞둔 배 우수수 '망연자실'

"추석은 어떻게 보내나" 눈시울

보성군 벌교읍에서 신발가게를 하는 강종태(60)씨는 17일 하루 종일 1천 켤레가 넘는 신발을 빨고 또 빨았다. "헐값에라도 이것들을 팔아야 추석 대목을 볼 것 아니여?" 뼈만 앙상한 그의 손에는 황토에 범벅이 된 운동화 한 짝이 들려있었다.

제11호 태풍 '나리'(NARI)가 휩쓸고 간 보성군 벌교읍은 처참했다. 읍내를 관통하는 길이 1.2㎞의 중앙로에는 신발, 이불, 장판, 농기구에 온갖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대형펌프차 2대·굴삭기 24대·덤프트럭 7대 등 각종 복구 장비 44대를 앞세운 군청 직원·경찰·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들이닥쳤다. 저마다 삽을 들어 토사를 걷어내고, 흙탕물로 범벅이 된 물건들을 씻고 또 씻었지만 워낙 수해가 컸던 탓에 온 종일 허리 한번 펼 틈이 없었다.

철물점을 하고 있는 김우진(여·55)씨는 농기구·그물망 등을 저장해 둔 창고에 40㎝가량 진흙더미가 쌓이는 바람에 문조차 열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창고 안에 쌓아둔 물건을 정리하려면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추석 차례는 다 틀렸지라. 마침 자식들이 휴가를 내고 서울에서 새벽 1시에 내려와 지금까지 잠 한숨 안 자고 돕고 있어 다행이요."

벌교읍내에 수마(水魔)가 덮친 시각은 전날 오후 7시께. 시간당 84㎜ 등 14~15일 이틀간 384㎜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수펌프장의 배수 용량을 초과해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했다. 또 폭우가 인근 부용산(높이 609m)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섞여 상가를 덮치면서 시가지 126ha가 침수돼 벌교읍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신발가게 주인 강씨는 "무섭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채 5분도 안돼 흙탕물이 가게를 덮쳤다"며 "물에 젖은 신발을 말려서 싸게 판다고 해도 누가 사갈 것이며, 이 많은 신발들을 어찌해야 하냐"며 난감해 했다.

이곳에서 4㎞ 떨어진 마동리. 배 과수원을 하는 160가구가 낙과 피해로 올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했다.

4천958.7㎡(1천500평)에 280그루의 배나무를 키워 온 박길용(67)씨는 "잦은 비 때문에 당도가 낮아서 출하를 좀 늦췄는데 자식처럼 키워온 배 80%가 강풍에 떨어졌다"며 "과수원 옆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떨어진 배까지 쓸고 가버렸다"며 울먹였다.

보성군 문형석 재난복구계장은 "하수 펌프를 종일 가동해 하수구의 물을 벌교천으로 뽑아냈으나, 저지대인데다 조수까지 겹쳐 피해가 컸다"며 "적어도 한 달 이상 피해 복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태풍 피해자 세정 지원

피의자 벌금도 낮추기로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제 11호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관내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 담보 제공 면제도 검토 중이다. 또 체납자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미루며 세무조사도 자제키로 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순천·고흥 등에 거주하는 피의자가 태풍 피해 사실을 소명할 경우, 벌금을 감경해 구형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분할납부토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02-722-1282 www.ikpec.or.kr
한국언론윤리위원회 독자법률윤리위원

■ 태풍 '나리' 왜 비 많고 속도 빨랐나

찬 대륙공기 만나 직선으로 북진

고흥반도에 16일 오후 상륙했던 제 11호 태풍 '나리'는 크기는 작지만 빠른 이동속도로 '강한 태풍'의 위력을 과시하며 17일 자정께 경북 안동 남서쪽 약 80㎞ 부근에서 소멸했다.

'나리'는 최대 강풍 반경이 180㎞에 불과한 소형급 태풍이었지만 거의 두 시간 만에 고흥에 239㎜의 비를 내렸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7m를 기록해 고흥지역 기상관측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위 9.5~19.5도(동경 130~149도)의 북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해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북위 25~30도 부근에 다다르면 방향을 바꿔 포물선 형태를 그리며 움직이는데, '나리'의 경우 전향(轉向) 정도가 작아서 직선 형태로 30㎞대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북진했다.

특히 전향하는 시점에 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약화되지 않은 채 한반도에 상륙해 피해가 컸다. 고온다습한 공기로 구성된 태풍이 가을철 찬 대륙공기와 충돌하는 전형적인 '가을 태풍'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당 92.5㎜라는 엄청난 폭우를 뿌린 것이다.

기상청 유희동 태풍황사과장은 "'나리'의 경우 편서풍이 부는 반대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방향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동 속도가 빠른 만큼 회전력도 빨라 강풍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원참 〈7311〉 김종두

이용사시험 돈만 주면 합격

이용사협회 광주지회장 등 104명 입건

이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 비리 사건 〈본보 8월16일자〉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17일 대리시험·자격증 대여·영업허가 면허증 위조 등의 혐의로 모두 10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이용사협회' 광주지회장 이모(48)씨와 백모(47)·김모(60) 국장 등 협회 간부 5명은 수험생 21명으로부터 실기시험 합격 대가로 1천57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수험생 김모(47)씨는 협회 간부에게 150여만원을 주고 실기시험 합격을 약속받고 조카(25)가 대신 실기 시험을 보게 한 뒤 자격증을 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무자격자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준 혐의로 협회 회원 백모(45)씨 등 65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각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 면허증을 위조한 광산구 K이용학원 원장 전모(60)씨 등 3명도 적발했다.

한편 이 지회장 등은 지난 2003년부터 한국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자신들이 실기 감독관으로 배정되자 수험생 23명으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고 합격시켜주고 협회비 등을 챙겨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85억대 인터넷 경마 도박 4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은 17일 전국의 경마·경륜·경정 실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내기를 하도록 한 이모(26)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모(여·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마고 레이스'(magoin.com) 등 인터넷 사이트 6개를 개설, 회원을 모집했다.

이어 한국마사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경정운영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마·경륜·경정 실황을 음성 중계하면서 1경주 당 1만원~무제한까지 금액을 걸 수 있게 해 판돈 85억원 중 10억원을 챙긴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 좋은 건축 신뢰제품 KCC
DS건설(주) KCC창호, 현관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메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재·접착제·테이프

'불륜 협박' 10명에 2천여만원 뜯어

쌍나팔

○…여수경찰은 17일 남녀의 모텔 출입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이모(38)씨를 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2시께 김모(42)씨가 내연녀와 여수시 화정동 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후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 25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이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비디오로 찍고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불륜이 들통날까봐 돈을 송금한 사람이 여수·순천·광양지역에서 모두 10명으로 피해액은 200만~800만원까지 2천25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

/여수=강성훈기자 kangsw@